

嶺南學派와 脈絡 당는 嶺南語文學會

洪 在 杰

오늘 嶺南語文學會 創立 20周年을 기념하는 이 盛典에 韓國語文學會를 대표하여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韓國語文學會 會員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國語國文學研究를 위하여 꾀나무에 불씨를 지핀 곳이 바로 이 嶺南地域이라 한다면 여기에 가장 因緣이 깊고 脈絡이 당는 學會의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嶺南語文學會」라 생각됩니다. 光復의 환희는 國學의 研究熱을 高調하였으나 이어진 動亂으로 研究가 일시 중단되는 悲運을 겪고 겨우 1952年 12월에 避難首都 釜山에서 응결된 오늘의 「國語國文學會」가 學會誌의 形式을 띤 油印物을 創刊하게 된 것을 필두로 하여 그 4년 뒤인 1956年 11월에 大邱에서 뜻있는 教授中心의 假稱 「語文學會」가 당시의 靑丘大學 教授室에 連絡處를 두고 本格的인 學會誌의 모습을 갖춘 「語文學」誌를 創刊하여 그 實體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러나 보다 대견스러운 것은 이에 앞서 1955年 10월에 당시의 靑丘大學 文學會가 主催하여 市內 4個 대학(慶大 文理大, 師大, 靑丘大, 曉星女大) 國語國文學 專攻學生들이 모여 第1回の 聯合「國語國文學研究發表會」를 靑丘大學 大講義室에서 開催하여 盛況을 누렸던 일입니다. 그 때의 光景이 지금도 생생하고 기억이 새로운 것은 바로 그 때 本人이 첫 번째의 發表者로 登壇하는 榮光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의 그 行事와 一連의 脈絡이 당는 오늘의 이 行事에 參預하여 祝辭를 드리게 되니 더욱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學生中心의 自律

的인 研究發表會의 結果는 靑丘大學 文學會가 「國語國文學研究論文集」第1集에 모아서 刊行하였습니다. 이처럼 學生中心의 發表會와 論文集의 간행은 일찌기 없었던 破天荒의 일일 뿐만 아니라 발표된 論文은 學界의 긍정적 반향을 보이며 定說로 굳어진 成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行事는 점차 과문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釜山 地域의 各 大學까지도 參與하게 되어 이후의 學風造成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으나 5. 16 바람에 그 열기가 식어지고 말았던 것을 무척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教授中心의 「語文學會」(現 韓國語文學會)와 學生中心의 聯合發表會가 해를 거듭하며 활발히 이루어져서 教學間의 研究風土가 무르익어온 지역이므로 감히 國語國文學研究의 요람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듯합니다.

이러한 學風의 造成은 이 地域이 가진 自然的 地理的 環境과 歷史的 人文的 背景이 빛은 研究의 好條件 때문이었음은 물론이지만, 直接的으로는 先學의 啓導와 格려의 힘이 컸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地域은 教場과 師生을 초월하여 오로지 斯學研究를 위한 一體感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의 學風을 이룩해 온 고장입니다. 그래서 「嶺南學風」이란 말이 慣用化되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40餘星霜을 지나오는 동안에 社會的 環境과 研究與件의 變化 등은 研究人口의 저변을 확대시켰고, 研究領域이 分化되었으므로 研究風土의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1970年代에 들어 이루어져 온 學會의 單位別 分家現象과 專攻別 分化現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變換期를 맞게 되자 곧 各 大學中心의 研究會가 結成되었고, 또한 專攻分野 中心의 專攻學會가 結成되어 獨創의인 研究雰圍氣를 造成하게 되어 보다 알찬 成果를 거두어 온 실정입니다. 이러한

學界의 發展의 過程에서 1974年에 들어 탄생된 것이 바로 오늘 創立 20周年을 맞는 成年期의 이 「嶺南語文學會」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學會는 嶺南學脈의 大幹을 이루고 있는 「韓國語文學會」에서 뻗어나간 줄기 찬 가지學會로서 바야흐로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이 토실한 열매를 맺어 이제 한창 수확하고 있는 생기 발랄한 學會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의 괄목할 발전에 대하여 松茂栢悅의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域外의 한 사람으로서 이 學會의 現況과 그동안의 成果를 눈여겨볼 때 會員의 엄청난 增殖은 바로 會勢를 말해 주고 있으며, 會員의 눈부신 活動과 오달진 成果는 會運을占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集積된 會誌 「嶺南語文學」의 돈보이는 質量은 참으로 斯學界에 던져진 커다란 業績이라 높이 評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名實相符한 嶺南學林을 造成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널리 번지고 길이 뻗어 나갈 기틀을 단단히 다진 成年學會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發展的 變換期의 선두주자가 된 이 學會는 이 지역의 研究 風土에도 크게 영향하여 이제는 이 지역에도 各 大學中心의 學會가 모두 결성되어 나뉠대로의 진지한 研究活動이 展開되고 있음을 볼 때 줄기學會인 「韓國語文學會」는 한결 튼튼해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發展이 洋洋함을 可期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各 가지學會가 너무 獨自性을 強調하게 되면 도리어 學問의 폐쇄화와 我執을 助長하게 되어 學的 情報의 交換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同學間의 交感이 둔화되고 소원해져서 순수한 研究活動에도 위축과 침체를 자초할 우려가 없지 아니 합니다. 그러므로 줄기學會인 「韓國語文學會」를 學海의 廣場으로 삼아 各 가지學會는 滋養한 力量을 다시금 結集하여 嶺南學脈의 큰 系統樹를 기를지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共

同의 努力을 기울이는 先鋒學會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쪼록 會員 여러분과 學會의 발전을 빌면서 두서없는 말로나마 祝辭로 代하고자 합니다.

(韓國語文學會長)

※ 이 글은 本會 創立 20周年 기념식에서 있는 祝辭의 全文이다.